

## 문제점 목록

프로젝트명	가짜 뉴스 판별 딥러닝 모델
-------	-----------------

조	2 조
지도교수	정상근 교수님 (서명)
조원	201803851 양성욱 201802074 김재윤 202104514 박규수

## 1. 이해당사자(stakeholder)의 문제 이해

---

- 인터뷰 대상 - 충남대학교 토론 동아리 ‘논함’ 회장(20학번 홍민기)
  - 인터뷰 목적 - 주제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그 정보를 이용해 토론을 하는 토론자에게 가짜 뉴스로 피해를 본 적이 있는지, 혹은 이를 해결해 본 경험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식을 사용했는지에 대해 물어보고 전반적으로 신뢰성 높은 정보의 취사선택을 하는 과정을 알아보기 위함.
  - 사전에 준비한 질문
    - ‘논함’의 토론 진행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 토론을 준비하면서 정보를 어디서 얻는지?
    - 정보 수집에 어려움이 있었던 적이 있는지?
    - 토론을 준비하면서 뉴스를 자료로 주로 사용하는지?
    - 가짜 뉴스를 무엇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 가짜뉴스를 본인이나 동아리 활동 중 접해본 적이 있는지?
    - (위 사항에 ‘그렇다’라고 했다면) 가짜뉴스를 접하고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 어떤 방식을 사용했는지?
-

---

● 인터뷰를 통해 파악한 정보

- 문제 - 가짜 뉴스를 판별하기 어렵다
- 고충 - 정제된 정보를 판별하기가 어렵다
- 원하는 것 - 거짓 정보를 구별해내고 싶다

-세부 내용 -

토론 동아리를 운영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정보의 신뢰도 판단과 뉴스와 뉴스 사이트가 가지는 공신력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인터뷰에서 대상자는 “주제가 되는 사안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신뢰성있는 정보라고 할 수 있는 공식 기관의 통계, 관련 전문가의 논문, 정부 기관의 자료들을 찾아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정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라고 하였고, 또한 ” 뉴스는 기자에 의해 정제된 정보 “라고 하셨습니다.

위의 두 대답을 통해 기자에 의해 이미 정제된 뉴스의 참,거짓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직접 정보를 정제하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는 관련 지식과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많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얻은 프로젝트에 도움이 되는 정보 -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로써 몇가지의 본인의 의견을 받았는데 그 중 공신력이 되는 사이트와 계정에 의해 생겨난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개인이 표현하는 것은 가짜 뉴스로는 적합하지 않음을 말하였습니다.

대상자 분께서 “가짜 뉴스는 사람도 판별이 어려워 판별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판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뉴스를 프로그램으로 판별해내어 배제하고자 하는 것은 검열이 될 수 있어 자동으로 참,거짓을 판단하는 프로그램은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얻었습니다.

이후 내용이 뉴스 주제와 완전히 다른(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상품 홍보, 어느 한쪽을 폄훼하기 위한 기사 등)가짜 뉴스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그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또한 저희의 주제인 정치, 경제, 시사의 경우 정당의 성격을 대변하게 되는 ‘오염’을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

문제점	문제점 파악 방법	문제 상세 기술		
		이해당사자	고충/니즈	이유
가짜 뉴스를 판별하기 위한 정제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움	인터뷰	관련주제 토론자	자신이 얻은 정보가 사실인지 판별하기 위해서는 정제된 정보를 얻어 판별해야 하나 이것이 어려움	여러 곳에 있는 정보를 내가 원하는 형태로 정제해 내려면 신뢰성 있는 자료를 찾아 적합한 형태로 만들어야 하나 그 과정 자체가 매우 복잡하고 어려움
신뢰성 있어 보이는 정보여도 거짓인 경우가 있음	위 인터뷰 대답의 후속 대답	관련주제 토론자	신뢰성 있는 자료처럼 보이더라도 아닌 경우가 있어 이것을 판단해야함	실제 있던 상황을 예시로 들어 주셨는데, 전문가의 논문을 가져와서 근거로 삼았으나 다른 공식기관의 통계와 어긋나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음. 이를 판단하는 것은 많은 정보가 있지 않다면 불가능함
공신력 있는 자료 또한 거짓일 수 있음	위 인터뷰 대답의 후속 대답	관련주제 토론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시된 자료여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음	UN이 한국을 물부족국가라고 지정한 상황을 예시를 들어 이야기 해주셨는데,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도 항상 맞을 수는 없기 때문임

## 2. AS-IS 파악

---

- 현재 가짜 뉴스를 파악하는 시스템의 상황 - 현재는 ‘SNU팩트체크’ 같은 방식으로 뉴스 기사에 대한 참,거짓을 판단하는 방식이 마련되어 있으나 뉴스를 접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뉴스 기사를 읽고 자신이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현 방식의 문제점
    - ‘SNU팩트체크’를 예시로 든 팩트체크 사이트들의 경우 가짜 뉴스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안을 하여 그것이 다른 제휴 언론사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것을 기자가 확인하여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 이전 ‘팩트체크넷’이라는 시스템이 서비스 종료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 팀 프로젝트가 판별하고자 하는 분야가 정치, 경제, 시사인 만큼 현 방식으로 중립을 지키는 것과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

### 3. 수정 사항

- 1주차 디자인개요서의 피드백의 결과로 목표와 이해당사자에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목표는 가짜뉴스 판별 딥러닝 모델에서 정치, 시사, 경제의 가짜뉴스 판별 모델로 바뀌었고 이해당사자는 불특정의 다수의 신문 구독자에서 정치 이해자, 정치 관계자, 정치 단체별 회원으로 시사, 경제, 정치 뉴스에 대해 관심이 깊고 또한 이로 인한 피해나 이익을 취하기 쉬다고 생각했습니다.

2021년 1~2월 통합		조사완료 사례수 (명)	가중치 사례수 (명)	귀하는 평소 정치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치 비관심층
				많이 있다	약간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모름/ 응답거절	
전체		7,011	7,000	24%	44%	22%	8%	2%	32%
지역별	서울	1,344	1,339	26%	44%	21%	7%	2%	30%
	인천/경기	2,186	2,179	25%	45%	21%	7%	2%	30%
	강원	213	211	20%	40%	22%	16%	2%	40%
	대전/세종/충청	734	739	24%	42%	22%	10%	3%	34%
	광주/전라	687	688	21%	46%	22%	7%	4%	33%
	대구/경북	694	689	22%	44%	23%	9%	3%	34%
	부산/울산/경남	1,061	1,065	24%	44%	23%	8%	2%	33%
	제주	92	89	13%	47%	29%	7%	5%	41%
성별	남성	3,529	3,471	28%	44%	18%	8%	1%	26%
	여성	3,482	3,529	20%	44%	25%	8%	3%	36%
연령별	18~29세	1,128	1,247	10%	43%	28%	18%	1%	47%
	30대	986	1,091	20%	52%	21%	7%	0%	29%
	40대	1,301	1,316	27%	45%	21%	5%	1%	27%
	50대	1,445	1,372	30%	44%	19%	4%	1%	25%
	60대 이상	2,151	1,975	28%	40%	20%	7%	5%	32%
성/연령별	남성 18~29세	579	654	14%	42%	24%	18%	1%	43%
	남성 30대	538	562	24%	52%	16%	6%	1%	24%
	남성 40대	695	669	34%	45%	16%	4%	1%	21%
	남성 50대	743	692	33%	44%	17%	4%	2%	23%
	남성 60대 이상	974	894	32%	41%	18%	7%	2%	27%
	여성 18~29세	549	593	6%	43%	33%	17%	1%	51%
	여성 30대	448	529	15%	51%	26%	7%	0%	34%
	여성 40대	606	647	21%	45%	26%	6%	2%	34%
	여성 50대	702	679	28%	45%	22%	5%	1%	27%
	여성 60대 이상	1,177	1,081	25%	39%	22%	7%	7%	36%

(출처 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21 - <https://www.gallup.co.kr/gallupdb/columnContents.asp?seqNo=127>)

또한 대부분의 정치 관심도가 높은 이들은 30대 이상으로 사회생활로 인해 뉴스 기사 전문을 읽거나 다른 다양한 뉴스를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뉴스가 쏟아지는 현대에서 정치, 시사, 경제 이해관계에서 나오는 과장되거나 사실이 아닌 뉴스를 쉽게 파악하기 어렵고 번거로운 것이 이해당사자에게 큰 **고충**으로 올 것이라 판단 했습니다.